

내 정신이 꿈꾸는 눈부신 풍경

역사와 관능이 있는 서가의 낭만

김영민

부산대 강사·철학

장방형의 내 방 한쪽 벽면은 긴 서가(書架)로 빼곡하다. 검정색으로 매끄러운 전집류도 없고 또 새 책마저 드물다보니 원목으로 다듬지 않은 서가와 함께 손때의 기억으로 인한 질감이 사뭇 정겨운 느낌을 준다.

이 정겨움의 한 권은 이 모든 것이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과도 연관이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종이 속의 섬유질이란 컴퓨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견결 미시자연의 일부이지만, 나무와 가까이 사귀어온 인류의 긴 역사를 기억해보면 특별히 그 제재(製材)가 주는 정겨움의 깊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즉 이 정겨움 속에는 나무, 혹은 책과 인류가 함께 손잡고 흘러온 공진화(共進化)의 역사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으리라.

'낮익음'과 '정겨움'의 연상

그러나 목재로 만든 서가와 책에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 느끼는 정겨움에는 또다른 요인이 있다. 그것은 우선 '풍경'에 대한 것이다. 가령 산행(山行)에서 잘 알 수 있듯이 풍경이란 일차적으로 색채감이며 또 이로 인한 형태감인데, 색채감이 앞서서 오는 시각행위 자체가 색감의 구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외출 끝에 집에 들어서면 내 방은 우선 풍경으로 나타난다. 물론 그 풍경의 압권은 한쪽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서가와 그 속에 펼쳐진 책들이다.

사실 방이 내 눈에 풍경으로 떠오르는 이유도 이 '책의 병풍' 때문이다. 수천 권의 책들은 모두 내 정신사의 일부이니 한권 한권이 모두 나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겉풍경으로 보이는 책들이 각양각색으로 서 있는 모습은 흡사 어느 가을날 야산을 울긋불긋 채우고 있는 낮익은 잡목들을 연상시킨다. 물론 이 연상은 서가나 책이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의해서 아마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전자파가 쏟아져 나오는 매끈한 컬러 모니터를 두고 이런 연상을 퍼지는 않을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서가를 대하는 내 시선과 정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낮익음과 정겨움으로 이끄는 연상의 출처는 오히려 서가의 풍경 속에 담긴 색감의 조화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내게 재미있고, 심지어 신비스럽게 생각되는 점은 책을 어떻게 배열하든지 전체 서가의 풍경이 주는 색감은 늘 조화롭고

자연스럽다는 사실이다.

이는 산수(山水) 풍경의 어느 쪽을 뜯어보는 자연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평범한 사실과도 일치한다. 내 방 서가를 마주한 소파에 앉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색감으로만 치자면 서가야말로 최고의 장식품이 아닐까.

'장식품'이라는 표현에 다급한 저항감을 느끼는 문사들이 있겠지만 책의 임박한 죽음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지금, 그 뜻만 제대로 새긴다면 '장식품'으로서의 책의 존재가치도 진지하게 토의할 만하다. 물론 내 취향으로는 최고의 장식품이 되려면 전집류 따위의 장식용 책들이 없어야 하고 책마다 질감이던 손때가 묻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장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책들이 자연스러운 장식품이구나! 책의 풍경이 내게 던지는 정겨움은 바로 이 자연스러움을 통해서 우러나며, 이 자연스러움은 특히 색감의 조화를 통해서 두드러지는 것이다.

서가에 꽂힌 삼천의 책들은
각기 나름의 색감과
정겨움과 역사와 관능을
지닌 채
내 정신의 관병식에 열렬히
응답한다. 나는 홀로 제왕이
되어 녹봉도 없는 신하인
책들, 즉 나를 둘러본다.
이 때의 내 서가는 가장 명료한
내 자의식이 된다.

그러나 책과 서가의 풍경을 보고 있으면 이 정겨움의 감정이 묘하게 승화하면서 내 심사를 깊숙이 들뜨게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면 질감이나 색채감에 젖었던 내 감각은 순식간에 휘발해버리고 마침내 정신의 눈부신 관병식(觀兵式)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 정신의 관병식! 서가의 풍경미에 쫓겼던 감각을 속으로 가다듬어가면서 마침내 나는 이 책들이 나와 맺고 있는 관계와 그 뜻을 찬찬히 되새겨본다.

나는 이 책들의 하나하나를 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앞에는 여인을 알아가면서 가령 그 자태의 명성에 들떠 설레임으로 담장을 기웃거리기만 했던 책도 있고, 나이와 객기를 발미로 치마만 들춰보고 도망했던 책도 있고, 힘들여 손에 넣고도 제대로 힘을 써보지도 못한 채 조루(早漏)했던 책도 있다.

그런가 하면 구석구석을 만져주고 활아주어서 그 하이얏고 까야만 속이 손에 잡힐 듯 익숙한 책도 있고, 마침내 그 정곡을 찔러 들어가 몸이 마음으로, 마음이 몸으로 흘러넘쳤던 황홀경의 책도 있다. 그러나 삼천의 책이 제 나름의 역사와 관능을 지닌 채 나를 향해 눈부신 미소를 흘리고 있는 내 서가를 보고 있으면 문득 누구누구의 삼천 궁녀도 부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몸'이 있는 서가 풍경

서가에 꽂힌 삼천의 책들은 각기 나름의 색감과 정겨움과 역사와 관능을 지닌 채 내 정신의 관병식에 열렬히 응답한다. 나는 내 정신의 내장을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펼쳐놓고 홀로 제왕이 되어 녹봉도 없는 신하인 책들을, 즉 나를 둘러본다. 이때의 내 서가는 가장 명료한 내 자의식이 된다. 펄프로 된 나의 자의식이라! 남해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창까지 이어져 있는 내 서가의 분열(分裂)은 곧 내 자의식의 자기 사열(査閱)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컴퓨터의 내장으로는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이 시대 문사의 마지막 낭만이 아닐까.

내가 내 책들을 관병하고 이로써 나 스스로를 사열하거나 혹은 수음(手淫)할 때 책들은 자신의 몸들을 드러내 보인다. 책의 몸이라! 문사들이 문약한 만큼 그들은 얼마나 책의 몸에 둔감했던가. 그러나 내 서가의 책들은 자주 몸으로 내게 다가온다. 종이 위를 기어다니는 검은 활자들은 정신의 꿈을 날날이 읽어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이 활자들이 모여 만든 종이와 책과 서가는 늘 내게 몸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서가는 늘 몸이 있는 풍경이다. 그것은 내 정신의 사열을 몸으로 되받는 파트너인 것이다. 더욱이 그 색감과 질감은 책과 서가의 몸을 더욱 구체화시킨다.

내 방에 들어서면 한쪽 벽면을 책으로 가득 채운 서가는 몸을 지닌 정겹고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나를 맞는다. 책들은 등을 돌린 채 입을 다물고 있다. 그것들은 얇은 교태와 깊은 지혜를 아울러 숨긴 명기(名妓)와 같은 존재이며, 혹은 잔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만 태풍에도 능히 견디는 노승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 내 정신이 꿈꾸는 풍경이기도 하다. 또 그것은 내 책들이 꾸는 꿈들로 이루어진 풍경이기도 하다.◆